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88

2017.12.31(송구영신호)

2017년 주님의교회 표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레 19:2, 롬 1:17)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_ 요한복음 3:16-17

오늘의 주요기사

- 2 신년 특집, 더 바이블
- 3 교회 소식
- 4~5 신년특집 / 담임목사 인터뷰
- 6 사역 소식
- 7 목회 칼럼
- 8 공동체 소식

교회 일정

- 1/7 (주일) 성찬주일
- 1/8(월)-13(토) 온가족이 함께 하는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 1/21,28(주일) 신임서리집사 교육
- 1/28(주일) 제직 수련회(예정)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주님의교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날로 시작하여 한 해의 마지막으로 끝나는 한 주일의 마지막 날이다. 한 해가 저물고 또 한 해가 온다. 닭이 가고 개가 온다. 자연의 시간에는 흐르는 물처럼 경계가 없지만 인간의 시간에는 경계가 있어 의미가 부여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영생은 시간을 잇는 삶이다. 지금에 연연하지 않고 오지 않을 끝을 상상하는 힘으로 사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의 영생을 믿었다면 사람들은 이처럼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이기에 타락하고, 사람이기에 영생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은 오직 사람의 선택이다. 다시 하나님과, 가족과, 세상과, 그리고 나 자신과 영생을 나눌 수 있는 또 한 해가 시작된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2018년 주님의교회 주제, 총회 주제에 맞추어 결정

2017년 교회 주제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였다.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해를 기념하여 세워진 이 주제는 ‘다시’라는 부사가 상징하듯, 지금의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한 안정감 속에 안주하고 있거나, 세상에 오염되어 더럽혀졌거나, 아니면 오히려 세상보다 더 추악한 모습으로 타락하여 세상

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세습, 교회 안의 권력 세습은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주제를 세운 이 해에도 크고 작은 교회에서 보란 듯이, 또는 은밀하게 반복되었고, 교회는 결코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선함을 세상 앞에 증거하기 (Protesto) 위해 존재한다는 종교개혁의

혁의 참뜻을 실천했다면, 세상의 뉴스에서 교회가 이처럼 욕됨의 상징으로 보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말은 장로교의 신학 노선을 정립한 칼뱅이 이미 500년 전에 <기독교 강요>에서 특별히 강조한 명제이다. > 2면에 계속

2017년 성탄절을 빛낸 두 음악예배

2017년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20일, 주님의교회 대예배실에서 임마누엘 찬양대와 주오 오케스트라 주관으로 2017년 성탄절 음악예배가 열렸다. 소년 2부 아름답드리 찬양대가 출연했고, 수요영어 예배 아이들 합창단의 찬양으로 음악회를 시작했다.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는 자녀가

초대하는 성탄절 가족예배가 역시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예배에서, 어린 자녀들의 음악과 춤을 통해 평화의 왕 구원의 주, 아기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함께 나누었다.

부푼 기대로 시작했던 2017년을 보

내는 아쉬움의 끝자락에서 금년 한 해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할 주님의교회에 새롭게 부어주시길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리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다짐으로 주를 찬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함즐함울

신년특집 / 2018년 주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를 깊이 생각한다

이미 500년 전에도 칼뱅은 개혁의 순간에 거룩한 교회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된 개혁을 통해야만 거룩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예견했다. 그런 점에서 2018년 주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는 아직 교회가 거룩하게 되지 못했음에 대한 고백과 통회에서 출발해야 마땅할 것이다. <함줄함울>은 총회에서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한 자료를 입수, 몇 회에 걸쳐 요약 분재하여,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기로 했다.

1.종교개혁과 ‘거룩한 교회’의 참된 의미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세 가지였다. 첫째는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둘째,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관심은 제102회 총회주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와 본질적으로 연

결이 된다.

교회의 거룩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 구원에 기인한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을 통해(though Faith) 하나님의 은혜로(by Grace)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였다. 그 결과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이라는 종교개혁의 3대 원리를 세웠다.

마르틴 루터는 교회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했다. 칼뱅은 성도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다

고 했다. 교회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벧전 2:9)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고전 12:27)이며, 성령의 전(고전 6:9)이다.

교회의 거룩성은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유지된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가시적 교회(visible church)와 불가시적 교회(invisible church)로 구분하여 이해했다. 불가시적 교회는 종말에 완성되는 완전한 교회이다. 반면 세상에 있는 가시적 교회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불완전한 교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시적 교회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신다. 가시적 교회 안에는 참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 표지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세례와 성만찬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집행되는 곳에 의심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말씀과 세례와 성만찬은 성령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거룩한 연합을 이루시는 은총의 수단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다시 부활하는 성례이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합시켜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이 교회의 것이 되게 하시는 성례이다.(계속)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더 바이블 (The Bible) 10

6. 모세오경

(2)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야곱에 의해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던 가족공동체가 야곱의 열두 아들과 함께 큰 민족을 이룬 사건에서부터 시작한다. 야곱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의 성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을 약속한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지내면서 경험했던 애굽의 문화, 정치, 종교, 생활관습에 대한 것은 야훼와의 끊임없는 갈등구도로 이어지며 이 갈등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야훼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시켜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거대한 생활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정체성을 확립하며 가나안 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간다.

〈1-6장〉

첫 번째 단락이라 할 수 있는 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하는 탄압과 모세의 소명을 다룬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억압은 애굽에서 떠나야만 하는 이유를 갖도록 한다. 또한 애굽에서의 억압 속에서 모세의 출생은 한 지도자의 출생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를 통한 삶과 광야의 삶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고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러하듯이 고난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7-12장〉

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10가지 재앙은 결국 바로와 야훼의 대결구도를

그려준다. 점층법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의 종교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대결구도를 그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신에 대한 이해와 존재증명을 해준다. 결국 바로와 애굽은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야 하는 당위성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는 시간과 행동들이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언약의 성취된 본문으로서 야훼가 결국 언약을 이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3-18장〉

이스라엘은 12장에서 라암셋을 떠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라암셋→숙곳→에담→비하히롯→홍해→수르광야→마라→엘림→신광야→르비딤→시내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 홍해 앞에서 종교적 신이해가 아닌 자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을 맞이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보호하심을 느끼도록 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여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어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은석 목사

큐티와 함께 하는 2018년

주님의교회 2018년은 큐티와 함께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부임한 김화수 담임목사는 목회의 중점을 크게 큐티와 제자훈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택자교육, 새신자반, 격자씨 인도자 교육과 구역공부, 새벽설교 등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육과 설교에서 큐티에 집중하기로 했다(4~5면 담임목사 인터뷰 기사 참조).

큐티용 교재는 우리들교회에서 펴내는 <큐티인>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교재는 우리들교회에서 2012년부터 발행해 온 큐티 묵상집으로, 구속사적 본문해설과 60여 명의 평신도의 신앙간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격월간으로 발행된다.

2018년에는 성찬식이 줄어든다. 이제까지 매월 첫 주 주일 예배때 드려졌던 성찬식을 2018년부터는 홀수 달 첫 주 주일 예배 때 드리게 된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나눈 떡과 포도주에서 유래한 뜻깊은 예식으로,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함글함글

2018년 제직부서

구분	위원회	간사장로(2017)	간사장로(2018)	분과위원회	위원장(2017)	위원장(2018)	교역자(2017)	교역자(2018)
사역위원회	목양	장일형	손천숙	예배	지유철(1)	심동욱(1)	심홍섭	심홍섭
				음악	김성구(1)	김익훈(1)	김대환	김대환
				소그룹	손천숙(1)	손천숙(2)	김용웅	김용웅
				젊은이	이성준(1)	이성준(2)	허 준	허준
				양육	황용환(1)	황용환(2)	홍성욱	홍성욱
				미디어	강진식(1)	강진식(2)	이은석	김대환
				봉사	유정식(1)	유정식(2)	김정형	최방은
	교육	조성득	김유호	어린이	김학원(1)	김학원(2)	문은영	문은영
				청소년	심동욱(2)	이용수(1)		
				청년	이용수(4)	배익환(1)	문희삼	문희삼
				EM	김유호(3)	김유호(4)	존슈나يدر	존슈나يدر
	섬김	박종규	동현수	복지(사랑나눔?)	배익환(1)	김익훈	정창화	정창화
				섬김과나눔	노봉옥(1)	노봉옥(2)		
				국내선교	서준규(1)	서준규(2)	최방은	최방은
				전문선교	강석인(1)	강석인(2)	이은석	이은석
				통일선교	정종국(4)	정종국(5)	허 준	허준
				해외선교	동현수(1)	동현수(2)	임창진	이은석

2018년 피택장로 : 김광일- 음악분과위원회, 조병길-미디어분과위원회, 손영익-해외선교분과위원회

부설	기관명	위원장(2017년)	위원장(2018년)	교역자(2017)	교역자(2018)
	청소년사역원	심동욱	이용수	문은영	문은영
	섬김과 나눔	노봉옥	노봉옥	정창화	정창화

2017년	당회서기 : 박대길	재정위원회 : 최성준	감사위원회 : 박중순	선임행정 : 장수현	목회기획 : 심홍섭
2018년	당회서기 : 김성구	재정위원회 : 최성준	감사위원회: 지유철	선임행정 : 장수현	목회기획 : 심홍섭

* 위원장 이름 옆의 () 숫자는 연차

선교 이야기 11

선교의 본질,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1)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창 1:22, 28). 만물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며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습대로 손수 빚으시며 더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치 자녀가 부모의 품성함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품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

다. 복받은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에녹도 그러했습니다(창 5:24).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통해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이끌려 하나님 주신 복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간들은 그 복을 누리기보다는 오

히려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혼잡해지고 흩어져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축복하시며(창12:2)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창15:5).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복과는 달리 미래형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말씀하셨는데(약속은 명령보다 더 좋습니다. 명령은 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행 여부에 달려있으나 약속은 약속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구약과 신약시대의 온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복되게 드러나는 복의 역사이며 그 가운데 이미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 다윗 시대에는 거의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되었습니다.

해외선교 분과위원회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고자 해외선교분과의 제공으로 12회에 걸쳐 선교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신년특집 / 김화수 담임목사 인터뷰

창립정신의 본질을 회복하는 새해가 되기를

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날, 김화수 목사가 주님의교회의 제5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지 한 달이 되었다. 2018년 새해를 앞둔 12월 19일 오후, 김화수 목사를 만나 19년만에 주님의교회에서 다시 섬기게 된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함줄함울

함 : 제5대 담임목사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임 후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래 전 부목사로 재임하셨던 교회에 19년 만에 돌아오신 소회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감사함이 많습니다. 주님의 교회 청빙이 결정된 후 섬기던 교회를 떠나는 일과 새롭게 사역할 주님의교회 사역을 두고 고민이 적지 않았습니 다. 그 때 하나님께서 제게 “네 십년 나 다오”라는 말씀을 주셔서, 섬기던 교회엔 여전히 면목이 없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었지만 새로운 사역을 위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제게 대해 많이 실망하고 마음도 상했을 터인데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면 잘 보내주어야 한다면, 저를 따뜻하게 보내주신 장로님들과 교우들에게 지금도 미안한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맞아주신 주님의교회 공동체에 또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들 간에 아주 강했습니다. 교회 안의 사역도 별로 없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일, 소그룹 공동체 활동과 성경공부가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각자의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는 정신이 강했고, 그 실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점이 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 : 주님의교회가 정신학원에 대강당을 지어 옮긴 1998년 말에 이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때와 변함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점도 있겠고, 차이가 느껴지시는 점도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듯하고, 최근 교회에 대해 많은 분들께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당시에는 모두가 창립정신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지금도 교인들의 자긍심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창립정신에 대한 자긍심이 교회와 삶 속에서 헌신과 실천으로 드러났고, 또 교회 안에서의 많은 대화도 그 실천을 함께 나누는 내용들이었으나, 지금은 스스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당시에는 실천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의식이 교인

들 간에 아주 강했습니다. 교회 안의 사역도 별로 없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일, 소그룹 공동체 활동과 성경공부가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각자의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는 정신이 강했고, 그 실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점이 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 : 초기 교인들은 목사님을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온 분들은 목사님의 개인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셨는지, 영향 받은 분은 혹시 있으신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래 목사가 될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로와 권사 아들

로 자라서 교회에 잘 출석하고 봉사 잘하는 모범생처럼은 보였지만, 스스로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 성경 공부중 이사야서 41장에서 43장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같이 공부하던 네 살 위 자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영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영어 선생이 꿈이었기 때문에 대학 전공도 그쪽이었는데, 제대 말년 휴가 나와서 신학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철학으로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었지요. 그 당시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커서 신학을 하고자 해서 목사가 되는 데 딱히 영향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함 : 지난 2015년 저희 <함줄함울> 팀에서 대구 신광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두 가지 목회의 중점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는 큐티, 하나는 제자훈련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점은 어떤 계기로 형성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1999년 뉴질랜드 이민 교회에 부임해 갔을 때,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줄은 알고 갔지만 새가족 심방을 권해도 당시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두 가기를 꺼려하시더군요. 이런 저런 소문도 많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영혼 구원을 중점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큐티와 제자훈련을 강화했습니다.

큐티는 일반적으로는 말씀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큐티를 통해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삶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며,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또한 제자 양육을 강조하는 까닭은,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를 자신에게만



“

큐티를 통해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삶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며,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제자 양육은 제몫만 하는 차원을 넘어, 영적 재생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를 자신에게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 양육은 제몫만 하는 차원을 넘어, 영적 재생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와 일대일 제자 사역을 한 후에, 교회의 여러 병폐가 치유되었고, 오uckland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신광교회는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좀 보수적인 곳이었습니다. 처음 부임해서 참석한 5월말 당회에서 그런 분위기를 느낀 후에, 6월말 당회에서 한 달에 두 번 새벽에 모여 말씀과 기도를 나누자고 큐티나눔을 권유했습니다. 당시 선임장로께서 대구신광교회 59년 역사에 처음으로 담임목사가 장로들에게 말씀묵상과 기도모임을 권유하니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동의하면서 큐

“**섬기던 교회를 떠나는 일과 새롭게 사역할 주님의교회 사역을 두고 고민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게 대해 많이 실망하고 마음도 상했을 터인데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면 잘 보내주어야 한다며, 저를 따뜻하게 보내주신 장로님들과 교우들에게 지금도 미안한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신 주님의교회 공동체에 또한 큰 감사를 드립니다.**”

”

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한 분의 장로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생활에서 적용하고 느낀 것을 나누었는데, 한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몇 달 못할 줄 알았는데, 제가 이임할 때까지 8년 4개월 동안 방학 때를 빼고 한 달에 두 번씩 새벽에 모여서 꼬박했지요. 장로님들이 모범을 보이셔서 큐티 공동체가 되었고, 삶의 공동체 열매가 만들어졌습니다.

함 : 그럼 주님의교회에서도 큐티와 제자 훈련을 중점으로 목회하시겠군요.

큐티와 제자양육은 실천과 영적 재 생산, 영혼구원으로 이어지면서 교회 변화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의교회에 와서도 1월부터 장로님들과 한 달에 한 번 새벽에 나와 큐티와 기도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택자 교육과정에서도 큐티나눔을 1월 6일부터 시작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서는 부서에 따라 현재 교재대로 하되, 한 해 지나서는 큐티교재를 택해서 하고, 어른들은 새 해부터 큐티 교재를 통해 큐티를 하는 것이 좋겠고, 소그룹, 겨자씨 등에서도 큐티나눔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큐티에서 토픽을 나눌 때에는 세상 이야기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나누기가 중요합니다. 큐티에서 묵상한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나누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가 매일 만날 수는 없으니,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서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실천한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 : <함줄함줄> 386호(2017.11.12)에 수록된, 새 목사님께 교인들이 바라는 소망은 읽어보셨는지요?

지면을 통해 읽었습니다. 거의 모든 의견이 주님의교회 초기 정신을 회복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몫이겠지요.

함 : 목사님 부임 이후 상견례와 설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비전과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미션, 그리고 일곱 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제1대 이재철 목사님은 ‘본질성의 회복’을 큰 가치로 삼았고, 제2대 임영수 목사님은 ‘건강한 영성의 회복’을 강조했으며, 제3대 문동학 목사님은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의로움의 사역’에 깊은 관심을 두었고, 제4대 박원호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공동체’를 비전으로 삼았었습니다. 목사님의 비전이 앞의 여러 역대 목사님들과 어떤 맥락으로 연결될 것인지 교인들의 기대가 큼니다. 아직 현황 파악하실 시간이 부족하셨겠으나, 특히 2018년에는 이 비전과 관련하여 어떤 목회방향이 있으신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의 네 목사님이 제시하신 비전의 공통분모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교회 안팎에서 제대로 살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비전도 가만히 보면 앞의 목사님들과 단절이 아니라 연속과 변화의 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살리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내년도 총회 주제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입니다. 제가 주님의교회에 청빙이 결정된 후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와 잘 어울리지 않을까?(웃음). 제가 이 비전과 미션을 결정할 때에는 총회 주제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총회 주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올해 생각하는 기본적인 목회의 방향은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슬로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 말씀이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소그룹, 겨자씨 등에서 큐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년 한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

로 살아가는 삶의 베이스를 만드는 해로 삼으려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리더그룹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천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나누는 한 해가 되도록 하려 합니다.



“

올해 기본적인 목회의 방향은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슬로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 말씀이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베이스를 만드는 해로 삼으려 합니다.

”

함 : 2018년에는 주님의교회가 3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교회 30년사를 맞아 돌이켜볼 때 주님의교회가 이 땅에 남긴 가장 중요한 발자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앞으로 30년 후를 바라볼 때, 창립 60년의 주님의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기대하시는지요? 30년 전에 창립한 주님의교회가 당시 물질만능과 성장으로 치달던 당시 교계에 바람직한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찬을 받았다면, 지금 이 시대를 맞아 주님의교회가 한국 교회의 변화를 위해 새롭게 제시해야 할 패러

다임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주님의교회가 30년 전에 남긴 가장 중요한 발자취는 창립정신일 겁니다. 창립 정신 자체가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러다임을 이 시대에 맞추어 제대로만 전파되어도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은 곧 주님의교회 디엔에이이므로, 교우들을 통해 세상 속에서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 : 예정했던 한 시간 삼십 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참 아쉽고, 청소년 사역 방안, 청년부와 장년부의 연계 등 더 여쭙 질문도 많은데 일단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내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마디 해주십시오.

청소년 사역은 주님의교회의 중요한 핵심 사역이고, 청년부는 깊이 있게 길게 보고 생각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황을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청년부도 1월 초에 청년부 임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소통이 가능합니다. 청년부들 앞에 놓인 삶의 이야기를 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사람의 신앙은 4대를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흔히 절대관계라고 합니다. 나의 신앙은 부모에게 영향을 끼치고, 배우자와 자식과 손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4대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왜 중요한지 돌이켜보며, 창립정신에도 밝힌 바와 같은, 주님이 주인 되는 신앙인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함 :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단 <함줄함줄>뿐만 아니라, 교회 구석 구석의 구성원과 깊이 있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역소식

올림픽 패밀리아파트 미술심리치료



국내선교분과 동부교회지원부는 올림픽패밀리아파트 경로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2017년 9월12일부터 12월5일까지 노인들에게 특화된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매주 1회씩 실시된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18명의 노인들은 한결같이 얼굴이 밝아지고 목소리도 커졌으며 자긍심과 자신감이 고조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마지막 수료식에서는 주님의교회 호산나 선교무용팀이 위문공연을 거행하여 어르신들의 큰 환영과 박수를 받았다. 무용공연 말미에는 어르신들과 무용팀 그리고 관계자들이 함께 손잡고 춤추고 허깅하며 노인들을 위로하는 감동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졌다.

수료식 후에는 예제교회에서 준비한 호박죽과 무용단이 준비한 댄스, 주

님의교회에서 준비한 간식 등으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심리상담사과정과 미술심리치료사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시무장로, 권사, 그리고 서리집사로 구성된 7명의 자원봉사자가 예제교회를 돕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예제교회는 주님의교회 부목사 출신인 우동윤 목사가 시무하고 있으며 올림픽 패밀리아파트 상가에 소재하고 있다.

올림픽 패밀리아파트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사 팀은 인근 우성아파트 주민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의 후원으로 우성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백경애 권사

사역팀 탐방 / 하임 찬양대

하늘나라가시는 교우 위한 찬양대



주님의교회 여러 사역팀 중에 상례위원회에 속한 하임찬양대가 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하는 말씀을 품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교우들의 빈소에 찾아가 예배를 하며 찬양을 하는 사역을 맡아하고 있다. 하임찬양대는 ‘하나님의 임재’ 또는 ‘영생’이라는 의미를 말한다.

2016년 하반기에 기도로 준비하며 2017년 1월 30여명으로 시작 되었고 첫 번째 사역으로 100세 되신 권사님의 발인 예배에 참석을 하여 찬양을 하였다. 하임찬양대가 하는 사역은 주로 새벽시간에 발인예배(천국환송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며 유가족을 위로하고 불신자에게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사

역에 임한다.

매월 첫째와 셋째 수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담당 목사의 기도로 연습을 시작하며 음악적인 기량을 높인다.

봉사자 모두가 모든 사역을 다 참여할 수 없는 현실에 맞추어 A조와 B조로 나누어 사역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헌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새벽을 깨우며 힘을 모아 사역을 하고 있다. “이른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의 모습이 은혜가 많이 된다” 하며 격려를 해주는 교우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금년도 마지막일런지 모를 하임찬양대 봉사를 마치며 2018년도 많은 교우들이 아름답고 귀한 사역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

고유자 권사 / 하임찬양대

군복무자녀들에게
성탄위문품 보내

군경선교팀에서는 12월 12일(화) 군경에 입대한 자녀들을 위한 부모 기도모임 후에 군복무 자녀들을 위한 성탄 위문품 70개를 만들어 보내주었다. 맛있는 간식과 성경책을 보내기 위한 박스를 만드는 어머니들 손길에서는 자녀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내고 군생활을 잘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담겨지는 귀한 모습들이었다. 2018년에는 군경선교팀에서는 6반의 신병교육대 세례예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교우들의 참석도 바라고 있다.

함줄함줄

“제8회 교회 직원, 교역자와 가족 위로의 밤” 행사



2017년 12월 21일(목) 저녁 6시부터 찬양대실과 식당에서 은퇴장로들이 주관하여 준비한 ‘교회 직원, 교역자와 가족 위로의 밤’ 행사가 교회 직원 및 교역자와 그 가족을 비롯하여 시무장로, 은퇴장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행사는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신 교회 직원 및 교역자와 그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위로하기 위한 자리로써, 매년 연말에 은퇴장로들이 섬겨왔던 행사이며 금년이 8회 째이다. 특별히, 금년에는 담임목사 부재중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 온 교역자와 직원들과 더불어 시무장로들도 함께 자리함으로서 더욱 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경건회를 마친 후에 2부에는 교회내 음악부서가 기획, 주관한 음악회가 열렸는데, 미시오데이 찬양대의 솔리스트와 주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자가 출연하고, 금관 5중주로 ‘Ewha Brass Quintet’가 특별 출연하는 ‘Thank-you Concert’로 진행 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회내 음악적 재능을 가진 교인들이 펼치는 다영하면서도 수준높은 음악회에 한껏 즐거워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음악회를 마치고 전 출연자의 연주에 맞추어 다 함께 ‘주기도문송’을 합창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다짐하는 특별한 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함줄함줄

목회칼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어로 1월을 'January'라고 합니다. 이 'January' 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야누스(Janus) 신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야누스는 문의 신인데, 그의 얼굴은 앞쪽과 뒤쪽이 다른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 앞면과 뒷면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년 한 해의 문을 닫고 새로운 한 해의 문을 열게 됩니다.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부분 이런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기원하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 잘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고, 사업이 잘 풀리며, 돈 잘 벌고 부자가 되는 복은 분명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모두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비가 올 때는 온 세상에 물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 걱정 없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가뭄이 오면 모두

말라 죽고 결국 살아남는 것은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뿐



다가올 한 해 참된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축복의 샘에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담그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계획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성의 샘을 채워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샘 곁에 심긴 나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입니다. 이 나무는 어떤 기후에서도 그 뿌리가 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축복받은 사람을 시냇

가에 심긴 나무에 비유합니다. 다가올 한 해 참된 축복을 사모하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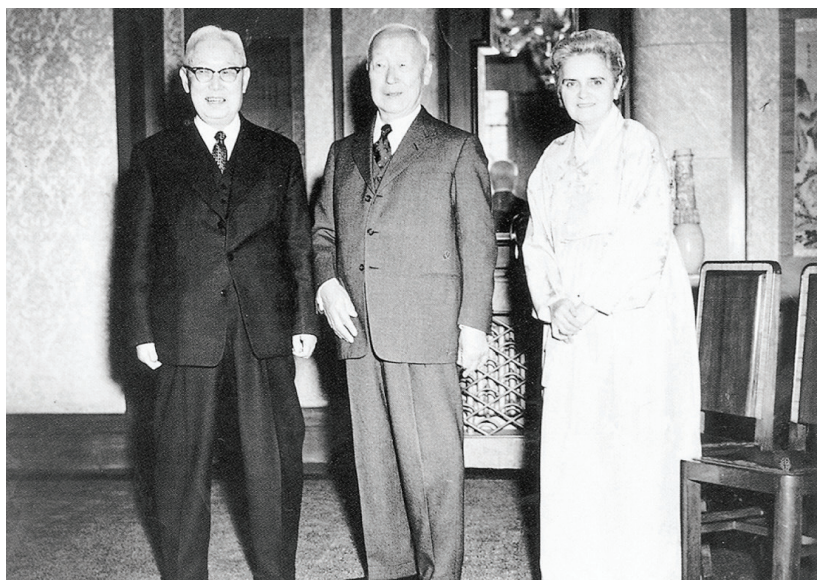
니까? 축복의 샘에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담그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계획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성의 샘을 채워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샘 곁에 심긴 나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 되더라도 샘 곁에 심긴 나무는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나무는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나무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하늘의 신비로운 복과 은혜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일 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며 위로부터 오는 참된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주님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창화 목사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50

재단법인 정신학원 설립(1)



초대 이사장 함태영 부통령

1956년 9월 3일, 재단법인 정신학원을 설립하고 인가를 받았다. 재단법

인 정신학원의 정관에는 앞으로 정신학원이 지켜야 할 중요한 내용들

을 담고 있었다.

제6조에는 기본재산에 대해 언급했는데,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 기부, 양도, 교환 또는 담보 등을 할 수가 없도록 했다.

제12조에는 이사와 감사에 대해 규정했다.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거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하도록 했고, 재단법인 정신학원이 경영하는 학교장은 재임 중인 이사로 하도록 했다.

제25조에는 정관 자체의 변경에 대해 규정했다. 이사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재단법인 정신학원의 첫 번째 이사 11명은 함태영, 전필순, 유호준(이상 3명 경기노회), 전마태(델마터), 옥호열(보컬), 권도희(킨슬러)(이상 3명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 유각경, 김순애, 최순옥, 황선이(이상 3명 동문회, 사회인사 1명), 김필례(교장 1명) 등이었다. 감사 2명은 표재환(경기노회), 김함라(동문회)이었다.

초대 이사장은 1952년 8월 15일부터 1956년 8월 14일 대한민국 3대부통령을 역임한 함태영이었다. 그는 퇴임 후 목사로서 활동했다. 이사는 11명 중 과반수를 넘는 6명이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와 경기노회 소속 이사로 구성되어 학교를 운영했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아이들이
**윤강희 아기**

2017년 7월 24일생

1. 건강하게 자라길 기도합니다.
2. 항상 기도와 찬송을 가까이하며 신앙 안에서 자라길 기도합니다.
3.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주님나라를 위한 빛과 소금과 같은 인재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빠 윤상현 / 엄마 남초롱, 2017년 12월 17일 2부 예배

**김재연 아기**

2017년 9월 23일생

1. 두아이(호연, 재연)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2. 우리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3. 우리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고 형통할 수 있도록.

아빠 김지훈 / 엄마 김빛나, 2017년 12월 17일 3부 예배

**이민채 아기**

2017년 7월 3일생

1.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 속에 살게 하소서
2. 지혜와 분별력을 주소서
3.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소서

아빠 이준완 / 엄마 한소리, 2017년 12월 17일 3부 예배

**이서진 아기**

2017년 6월 30일생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 이웃과 세상에 사랑과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빠 이세형 / 엄마 유재연, 2017년 12월 17일 4부 예배

**석주호 아기**

2017년 4월 18일생

1.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2.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도록
3. 늘 감사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아빠 석범준 / 엄마 이용미, 2017년 12월 17일 4부 예배

**윤강우 아기**

2017년 8월 24일생

1. 건강하고 씩씩하게 커서 주위 사람에게 행복을 전파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2.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기쁨을 주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3. 성령으로 치유, 주님의 아들로 사랑받는 강우가 되게 해주세요.

아빠 윤봉규 / 엄마 김세라, 2017년 12월 24일 3부 예배

**윤리안 아기**

2017년 9월 18일생

1. 베풀 줄 아는 따뜻한 마음과 현명함을 갖춘 아이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2. 지혜롭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3. 감사할 줄 알며 행복함을 나눌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빠 윤태수 / 엄마 윤지영, 2017년 12월 24일 3부 예배

**윤강현 아기**

2017년 7월 7일생

1.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건강한 육체와 말씀으로 무장된 올바른 정신으로 옳고 그름을 예리하게 판단하여 이 세상을 굳건히 이겨나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2. 요셉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스스로 그 꿈을 향해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꿈을 이뤄나갈 줄 아는 담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3. 삶의 가치를 깨달아 항상 노력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주변 아래를 볼 줄 아는 겸손함과 넓은 마음을 지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아빠 윤근배 / 엄마 전진숙, 2017년 12월 24일 4부 예배

교구탐방 / 2교구 송년 모임

날씨는 무척 차가웠지만 하늘은 파랗던 그런 좋은 날에 바람까지 불어 차가워진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질 만큼 추운 날씨에 2교구 송년 모임이 12월 16일(토)에 작년에 이어 마천동 길거리 청소와 독거노인들에게 작은 성탄 선물을 드리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40여명의 구역 식구들이 함께 청소를 하며 만나는 지역 주민에게 구역에서 준비한 수면 양말을 나누어 드렸다. 금년에는 두 명의 산타할아버지가 17분의 독거노인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드렸다.

어렵고 소외된 노인들과 장애인들 컴컴한 반지하 방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 소리를 자장가 삼아 하루를 보내며 죽배달 봉사자들을 기다리며 일주일을 보낸다는 분들, 10년 이상을 침대에 누워 병치레를 하는 노인들에게 늘푸른대학 뜨개질반에서 손수 뜨개질로 만든 모자를 씌워드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

만남과 인연이 잘~조화된 사람들의 인생은 아름다운 법~

함께한 겨자씨들과 나누며 함께 봉사를 하며 한해를 보내는 시간은 작은 기쁨이 소소한 여유로움이 되었음을 느꼈다.

옷깃을 여밀어도 찬바람이 파고드는 날들에 우리들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우고 겨자씨 한 분 한 분이 나누어주는 사랑의 온정을 흠뻑 느낀 귀한 날이었다.

김창석 집사 / 2-24 겨자씨

 알립니다
1. 신년 교회달력 배부

안내데스크에서 가정당 1부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새벽기도회

새해에는 큐티 책과 함께 진행됩니다. (큐티안-서점에서 구매 가능)

3. 연말연시 예배안내

송구영신예배: 오늘(12/31) 오후 11:30

* 당일 간지로 배부된 신년기도제목카드에 2018년 기도제목을 적어 안내데스크에 비치된함에 넣어 주십시오.

4. 온가족이 함께 하는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2018년 1/8(월) ~ 13(토)

주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가 매일 진행됩니다.

5.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2018/1/10부터

장소: 교회 사무실(직접 방문, 전화신청 불가)

홈페이지(온라인 사무실 / 온라인 기부금 납입증명서 이용)

* 교적 핸드폰 번호가 다른 경우 본인 인증이 안됩니다. 바뀌신 분은 변경 신청해주세요.

문의: 경리 간사(02.416.5181)

6. 아버지학교 자원자 모집

일시: 2018/1/14 ~ 2/11 매 주일 오후 4시

장소: 소년부실(3층)

회비: 12만원(1층 로비등록)

주관: 가정사역부 / 남선교회연합회

문의: 김명훈 안수집사(010.5285.6032)

7. 도서부 휴무: 2017/12/18(월)~2018/2/24(토)

주일은 정상운영 / 문의: 이제원 안수집사(010.3663.5850)